

蘇洵의 文學觀 考察

崔在赫*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문학의 진실성 강조 |
| II. 학술적 편향성 반대 | V. 사회적 실용성 증시 |
| III. 창작의 자연성 주장 | VI.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어느 작가라 해도 장르에 상관없이 문학에 대한 기본관념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문학의 가치 및 그 효용 관점 등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문학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점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문학관이라 칭하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인 심미구상방면이나 실제창작방면 등에 관한 문학이론에 앞서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나름의 작품세계를 구현했던 작가라면 거창한 문학이론은 없애는 치더라도 기본적인 문학관마저 없을 수 없다.

본고에서 문학관을 살펴보고자 하는 蘇洵은 체계적인 문학이론을 기술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나름의 문학에 관한 관점과 태도¹⁾를 지니고 있었기에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蘇洵의 문학 관점과 태도는 그 아들 蘇軾과 蘇轍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뿐 아니라 게다가 그는 唐宋八大家 중의 한 사람으로 후대 문장가들에게 추앙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국내 연구는 蘇軾 연구에 가려 그의 명성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다.

*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1) <中國古代文學理論辭典>, <中國文學理論史>, <中國歷代文論選>에서 <仲兄字文甫說>을 인용하여 '風水相運說'을 기술하면서 蘇洵이 문학 창작할 때에 자연미를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또 羅根澤은 <中國文學批評史>에서 '文章四用'說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會秉莊은 <蘇洵與北宋古文革新運動>(《四川師院學報》)에서 '得乎吾心說'과 '言必中過說'에 대해 언급하면서 蘇洵이 문학의 진실성과 효용성을 특히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필자가 그의 산문을 학위논문 주제로 삼아 연구한 적이 있고²⁾, 그 후 김종섭이 蘇洵의 論辯文에서 출발하여 그의 문학이론으로까지 접목시킨 논문이 두 편이 있을 뿐이다.³⁾ 이에 본고는 蘇洵의 문학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학술적 편향성 반대

작가의 사상에 대한 수용태도는 그 문학관과 직결되기에, 어느 한 작가가 여러 학술사상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녔는가는 그 문학관을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蘇洵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儒學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인간사회에 요구되는 사상으로부터 그 실질적인 통치에 이르기까지 모두 ‘올바름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진실함으로 사람을 감화시킨다(治心以正, 感人以誠)’라는 儒家的 입장을 견지하였다.⁴⁾ 그래서 그는 歐陽脩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韓愈의 道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孔子 死後 백여 년이 지나 孟子가 태어나고, 孟子가 죽은 후 수십 년이 지나 荀子에 이르게 되었다. 荀子가 죽은 후에 점점 멀어지더니 이백여 년이 지나 揚雄이 세상에 칭송 받게 되었고, 揚雄이 죽은 후로는 대를 잊지 못하다가 천여 년이 지난 후에야 韓愈가 그를 이어 받았다. 韓愈가 죽은 지 삼백여 년이 되었지만 천하의 어느 누가 장차 그를 계승하여 함께 할런지 모르겠다. (自孔子沒, 百有餘年而孟子生, 孟子之後, 數十年而至荀卿子, 荀卿子後, 乃稍闕遠, 二百如年而揚雄稱於世, 揚雄之死, 不得其繼, 千有餘年而後屬之韓愈氏, 韓愈氏沒三百年矣, 不知天下之將誰與也.)⁵⁾

이 글에서 그는 韓愈를 끝으로 儒家的 맥이 끊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歐陽脩가 韓愈에서 끊어진 儒家的 道統을 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자신 역시 儒家的 學風을 잇겠다는 심중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2) 拙稿, <蘇洵 散文 研究>(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94년 6월). 본 연구는 蘇洵의 創作論이란 부분에서 ‘風水相運·得乎吾心·文章四用·言必中過’ 등으로 나누어 논술하였다.

3) 김종섭 <蘇洵의 論辯文 研究>(《中國文學》 제25집, 1996년 6월), 199-220쪽; <蘇洵의 文學理論에 관한 一考察>(《中國文學》 제31집, 1999년 5월), 93-107쪽. 특히 蘇洵의 문학이론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공용론·문장의 개성을 중시·사실과 감정의 표현에 대하여 라는 세 장으로 나누고 蘇洵이 지은 작품이 대다수 논변문이라는 데 착안하여 그의 문학이론도 논변문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을 하고 있다.

4) 謝武雄 <蘇洵言論及其文學之研究>(台北, 文史哲出版社, 1981), 42쪽.

5) 蘇洵 <上歐陽內翰第二書>: <嘉祐集> 권11, 109-110쪽.

蘇洵은 이처럼 儒家사상을 평생 실천할 이상이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求學방법에 있어서 만큼은 유가학술 서적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서적을 보아야 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당시 유학과 불교 그리고 도가학술에 대해서도 엄밀히 따지면 경증이 있을지언정 어느 한 곳에 몰입하지 않고 두루 섭렵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문학수양과정 속에서 취한 행동을 통해 그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견해를 드러낸 문장은 다음과 같다.

몇년동안 물러나 초야에서 거하며 스스로 세속의 이익을 영원히 버리는 것을 분수라 생각하며 세상과 날로 소원해져서야 그 힘을 문장에 크게 펼 수 있었습니다. 《詩經》의 풍부하고도 자유로움, 《楚辭》의 맑고도 깊음, 《孟子》·韓愈 문장의 은화하고도 순후함, 司馬遷·班固 문장의 힘차고도 굳센, 《孫子》·《吳子》의 간략하고도 적절한, 마음먹은 바대로 붓을 놀리니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董仲舒는 聖人の 원리원칙을 얻었으나 그 과실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 되었고, 晁錯은 聖人の 융통성을 얻었으나 그 과실이 잘못 흘러 詐術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재주를 지녔으면서도 지나치지 않은 자는 아마도 賈誼뿐일 것입니다. (數年來, 退居山野, 自分永棄, 與世俗日疏闊, 得以大肆其力於文章. 詩人之優柔, 騷人之清深, 孟韓之溫醇, 遷固之雄剛, 孫吳之簡切, 投之所向, 無不如意. 嘗試以爲董生得聖人之經, 其失也流而爲迂. 晁錯得聖人之權, 其失也流而爲詐. 有二子之才而不流者, 其惟賈生乎!)⁶⁾

이 글에서 蘇洵이 다른 고문가들과는 달리 先秦의 《詩經》·《楚辭》·孫子·吳子·《孟子》, 兩漢의 賈誼·董仲舒·晁錯·司馬遷·班固 등의 문장을 두루 평한 것으로 보아, 문장을 배움에 儒家의 經傳에만 집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蘇洵은 歐陽脩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자신의 求學과정을 기술하면서 儒家의 經傳, 韓愈의 문장 및 기타 성현의 문장 등을 깊이 독서한 후에야 훌륭한 문장을 지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시절에 지은 수백 편의 문장을 모두 불태우고 《論語》,《孟子》,韓愈 및 기타 聖賢의 문장을 취하여 움지이지 않고 단정히 앉아 하루종일 그 문장들을 읽은 지 7,8년이 되었습니다. 독서의 초창기에는 그 글 안의 내용에 들어가서는 황망하여 여쭙할 바를 물었고 그 밖의 수사기교를 두루 살펴보다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로는, 더욱 精明하게 읽게 되어 그 가슴속이 후련할 정도로 환히 밝혀져 마치 다른 사람들이 진실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말을 아직 글로 감히 표현해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 가슴속의 말이 나날이 더욱 많아져서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여 시험삼아 가슴속의 말을 밖으로 내

6) 蘇洵〈上田樞密書〉:《嘉祐集》 권10, 104쪽.

어 글로 썼습니다. 얼마 후에 여러 차례 그 글을 읽어보니 꾸밈이 없고 간략하여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여전히 옳다고 감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盡燒其曩時所爲文數百篇，取論語孟子韓子及其他聖人賢人之文，而兀然端坐，終日以讀之者七八年，方其始，入其中而愴然，博觀於其外而駭然以驚；及其久也，讀之益精，而其胸中豁然以明，若人之言固當然者，然猶未敢自出其言也。時既久，胸中之言日益多，不能自制，試出而書之，已而再三讀之，渾渾然覺其來之易矣，然猶未敢以爲是也。)⁷⁾

그는 이 글에서 오랜 기간의 독서과정을 거친 후에 마음 속에 저절로 우러나온 말을 성심을 다해 써야만 비로소 훌륭한 문장을 짓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⁸⁾

그러나 宋代 道學家나 劉開·穆修·歐陽脩·曾鞏 등의 사람들이 古人的 文을 배우는 목적은 그 道를 구함에 있었으며, 唐代 韓愈도 일찍이 <答李秀才書>에서, “제가 文에 뜻을 두게 된 것은 단지 文辭를 좋아해서만이 아니고 文道를 좋아하기

7) 蘇洵 <上歐陽內翰第一書>: 《嘉祐集》 권11, 109쪽.

8) 대표적으로 韓愈의 <答李翊書>(屈守元·常思春 主編, 《韓愈全集校注》 제3책 1455쪽)를 인용해본다. 「처음엔 三代(夏·殷·周) 兩漢의 글이 아니면 감히 보려고 엄두도 내지 않았으며, 聖人의 뜻이 아니면 감히 마음에 두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집안에 거처할 때에는 무언가 잇은 듯하고, 길을 나설 때에는 무언가 빠뜨린 듯하고, 엄숙하게는 마치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하고, 망연하게는 마치 길을 잃은 듯이 하였습니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손끝에 쏟아내려 함에, 다만 진부한 말만큼은 힘써 제거하려 했지만 힘만 들고 애만 태웠지 어렵더군요! 그 글이 남에게 보여졌을 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 그 세인들의 비웃음을 비웃음이라 여길 줄을 몰랐습니니다. 이렇게 하기를 또한 몇 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고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야 옛글의 바름(儒家)과 거짓(道家와 佛家)을 식별하게 되었고, 또한 비록 울바르지만 그 지극한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荀子和 揚雄)과도 흰하게 흑백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힘써 제거하고서야 서서히 인음이 있었습니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 마음에 취해져 손으로 표현하려 함에 이르러서야, 물살이 급히 쏟아지듯이 거침없이 술술 써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그 글이 보여졌을 때, 남들이 비웃으면 기쁨으로 여기고 칭찬하면 도리어 근심으로 여겼습니니다. 예나하면 그 글에는 여전히 세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잔존해있기 때문입니니다. 이렇게 하기를 또 몇 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강물이 도도하고 분방하게 흐르듯이 글을 써 내려가게 되더군요. 나는 그래도 불순한 게 있을까 두려워했기에, 받아들이기는 하되 (道에 합당하지 않으면) 배제하고, 마음을 평정하여 그것을 살폈습니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순수해져야 글을 제 마음껏 펼쳐내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그렇기는 하더라도, (도덕과 학식을) 함양하는 걸 게을리 해선 안됩니다. 仁義의 길에서 행하고 《詩經》·《尚書》(고대 儒家의 經典)의 생에서 노닌다면, 그 길을 잃지 않을 뿐더러 그 생도 끊길 턱이 없으니, (이를) 내 몸이 다할 때까지 할 따름입니다. (始者, 非三代兩漢之書不觀, 非聖人之志不敢存, 處若忘, 行若遺, 優乎其若思, 茫乎其若迷, 當其取於心而注於手也, 惟陳言之務去, 要憂乎其難哉! 其觀於人, 不知其非笑之爲非笑也, 如是者亦有年, 猶不改, 然後識古書之正僞, 與雖正而不至焉者, 昭昭然白黑分矣, 而務去之, 乃徐有得也, 當其取於心而注於手也, 汨汨然來矣, 其觀於人也, 笑之則以爲喜, 譽之則以爲憂; 以其猶有人之說者存也, 如是者亦有年, 然後浩乎其沛然矣, 吾又懼其難也, 迎而距之, 平心而察之, 其皆僻也, 然後肆焉, 雖然, 不可以不養也, 行之乎仁義之途, 遊之乎詩書之源, 無迷其途, 無絕其源, 終吾身而已矣。)」이 외에도 장기간의 習作 훈련을 중시한 文論家들로는 曹植·葛洪·劉勰·柳宗元·白居易·歐陽脩·蘇軾·呂本中·侯方域·魏禧·王昶·姚鼐·曾國藩·黃侃 등이 있다. 朱壬生이 編述한 <古文法纂要>(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84) 270-288쪽 참조.

때문입니다”9)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후세 古文家들은 文에 뜻을 둔다고는 하였으나 솔직히 문사를 좋아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蘇洵은 《論語》·《孟子》·《韓愈》 및 여러 聖賢의 文章에서 취한 것은 그 文章자체나 文辭였지 그 文道는 아니었다. 유가 학술사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던 태도는 그의 문학관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편협한 틀에서 벗어나 각종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여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었고 그 나름의 문학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道學家와 經術家들은 글 쓰기를 직업으로 삼는 것을 경시하였고, 古文家들조차도 道를 위주로 배우면서 文을 겸하는 것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蘇洵은 글 쓰기에 힘을 들이려고 하였고 글을 배우는 것을 道를 배우는 것의 부업으로 삼지 않았다.

이상의 글들을 종합해 볼 때, 蘇洵은 전력으로 文章을 배우겠다고 하였지만 聖人之道만을 배우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蘇洵은 글을 배우는 텍스트 범위에 있어서도 儒家의 經傳뿐만 아니라 史書·兵書 및 다방면의 서적들을 취하여 읽어야 문장에 막힘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문학관은 그의 아들 蘇軾에게 이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蘇軾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슬프도다! 儒家와 道家의 문이 다르고 儒家와 佛家の 집이 다르며, 또 그 사이에 禪宗과 律宗이 서로 공박하는구나. 나는 큰 바다가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에 있음을 보았고, 長江과 黃河는 비록 줄기가 다르나 그 물줄기가 마지막에 이르는 곳은 同一하다는 것을 알았다.(嗚呼! 孔老異門, 儒釋分宮, 又於其間, 禪律相攻. 我見大海, 有北南東, 江河雖殊, 其至則同.)¹⁰⁾

이 글에서 蘇軾은 모든 물길이 한데 모이는 大海와 같이 어떠한 편견에도 치우치지 않고서 유가의 도뿐만 아니라 불가의 도·도가의 도까지 융화시키고 있다. 蘇軾의 이러한 관점은 어떤 사상을 계승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私見없는 타당한 진리에 도달하느냐에 있었다. 蘇氏 父子의 남다른 관점은 儒家의 仁義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외길의 정통을 고수했던 사람들보다 그 縱橫의 폭이 넓고 뜻이 깊으며 기지가 넘쳐날 수 있었으며 불후의 생명력으로 약동할 수 있었다.

Ⅲ. 창작의 자연성 주장

9) 韓愈〈答李秀才書〉:「愈之所志於文者, 不惟其辭之好, 好其道焉爾.」(《韓愈全集校注》)

10) 蘇軾〈祭龍井辯才文〉:《蘇軾文集》 제5책 권16, 1961쪽.

蘇洵은 감흥이 절로 일어 자신도 억제하지 못하여 글로 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문장을 반대하였다. 그는 〈仲兄字文甫說〉중에서 이러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본래 이 글은 蘇洵이 자신의 형 蘇渙의 字를 文甫라고 짓게 된 연유를 《周易》의 渙卦로 풀이하면서 쓴 글이다. 하지만 그 본의와는 무관하게 이 글을 통해 그의 문학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천상의 바람과 지상의 물이 서로 만나야 진정한 물결을 이룬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 문학창작에 대한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

형님께서는 일찍이 물이 바람과 더불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과 바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연히 흘러가고 조용히 머무르고, 피어 돌고 크게 넘실대다가 가득 차서 위로 부상하는 것, 이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실재론 물을 일으킵니다. 웅웅 허공에서 일어나 끊임없이 매일 사방으로 가고 그 기세는 쓸어버릴 듯 대단하지만 모습을 드러냄이 없고 나부끼듯 아주 먼 곳에서 불어오며, 이미 지나가 버리면 그 자취의 흔적도 없는 것, 이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나 물이 실재론 바람을 형상화시킵니다. (且兄嘗見夫水之與風乎? 油然而行, 淵然而留, 溇洄汪洋, 滿而上浮者, 是水也, 而風實起之. 蓬蓬然而發乎大空, 不終日而行乎四方, 蕩乎其無形, 飄乎其遠來, 既往而不知其迹之所存者, 是風也, 而水實形之.)¹¹⁾

이 글에서는 물과 바람은 모두 단독으로 물결무늬, 즉 문장을 이룰 수 없음을 말하였다. 이어 다시 상세하게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무릇 바람과 물이 서로 큰 호수에서 만나 비스듬히 물결 지어 흐르고 꿈틀꿈틀 잔 물결 지며 편안하면 서로 밀다가도 노하면 서로 능멸합니다. ……순조로이 흐르던 강물이 물결치다가 큰 바닷가에 이르면 격류가 세차게 솟솟음쳐 포효하듯 서로 부딪칩니다. 파도가 서로 교차하여 얽혀 텅 빈곳에 내버려지고 무한한 곳에서 흔들리고, 가로로 흘러 거슬러 꺾이고 솟아올라 소용돌이쳐 기울어지고 굽이쳐 꺾입니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바람이 물위를 스치는 것을 '渙(찬란한 문채)' 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천하의 지극한 무늬입니다. (今夫風水之相遭乎大澤之陂也, 紆餘委蛇, 蜿蜒淪漣, 安而相推, 怒而相凌. ……汜乎順流至乎滄海之濱, 滂薄洶湧, 號怒相軋, 交橫縹緲, 放乎空虛, 掉乎無垠, 橫流逆折, 瀆旋傾側, 宛轉膠戾. ……故曰, 風行水上, 渙, 此亦天下之至文也.)¹²⁾

바람과 물이 만나 때로는 평온하다가도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면서 비로

11) 蘇洵 〈仲兄字文甫說〉: 《嘉祐集》 권14, 144쪽.

12) 蘇洵 〈仲兄字文甫說〉: 《嘉祐集》 권14, 144-145쪽.

소 지극한 무늬를 이룬다고 하였다. 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물상이 어찌 무늬를 추구했겠습니까! 아무런 의도 없이 서로 구하고 기약 없이 서로 만나서 무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무늬라 함은 물의 무늬도 아니요 바람의 무늬도 아닙니다. 두 물상은 무늬를 만드는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상이 서로 작용하여 무늬가 그 사이에서 생겨났습니다. 고로 이것이 천하의 지극한 무늬입니다. 무릇 옥이 은은하게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지만 무늬라고 할 수는 없고, 칼로 새기거나 수놓은 것이 무늬 아닌 것이 없지만 자연스러움으로 논하여 질 수는 없습니다. 고로 무릇 天下에 의도하지 않고서도 무늬가 생기는 것은 오직 물과 바람뿐입니다.(然而此二物者, 豈有求乎文哉. 無意乎相求, 不期而相遭, 而文生焉. 是其爲文也, 非水之文也, 非風之文也. 二物者, 非能爲文, 而不能不爲文也. 物之相便而文出於其間也. 故此天下之至文也. 今夫玉非不溫然美矣, 而不得以爲文. 刻鏤組繡非不文矣, 而不可與論乎自然. 故夫天下之無營而文生之者, 唯水與風而已.)¹³⁾

玉과 繡를 예로 들어, 玉처럼 내용만을 가지고 있거나 繡처럼 형식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물과 바람처럼 자연스럽고 지극한 문장을 이루어 낼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물은 작자 내심의 사상감정 및 작자의 평상시 학문도덕의 수양을 비유한 것으로, 歐陽脩가 말한 “근심·그리움·느낌·감정의 쌓임(憂思感情之鬱積)”이라고 한 것과 비슷하며, 바람은 이러한 사상감정과 수양상태가 외재하는 사물과 機遇함을 비유한 것으로, 歐陽脩가 “벌레·물고기·풀·나무·바람·구름·새·짐승의 만물(蟲魚草木風雲鳥獸之狀類)”이라고 말한 것과 흡사하다.¹⁴⁾ 이로 보건대, 물은 작자 자신만이 가진 주관적인 조건이며, 바람은 모든 사람이 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蘇洵이 언급한 ‘風水相遭’란 內心の 사상감정이 外物의 자극을 받아서 글로 표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러한 상태를 비유하는 말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과 물이 서로 만난 것처럼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창작충동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天下之至文’이 생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前人들 중에는 단지 사상·학문의 수양만을 강조하여 흥증이 충실하기만 하면 좋은 작품을 써낼 수 있다거나 또는 단지 표현방식·수사기교만을 중시하여 이러한 것들에 얽매어서 공들여 써야 문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風水相遭’의 자연스런 문

13) 蘇洵 〈仲兄字文甫說〉: 《嘉祐集》 권14, 145쪽.

14) 成復旺 외 2인 《中國文學理論史》(北京, 北京出版社, 1991) 2권, 353쪽에서 재인용. 歐陽脩 〈梅聖俞詩集序〉: 《歐陽脩全集》(北京, 中國書店, 1986) 《居士集》 권42, 295쪽 참조.

학규율을 경시한 것이다.

蘇洵은 바람이 물을 일으키고 물은 바람을 형상화한다고 하여 두 物象이 한데 어우러질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고 하였다. 蘇洵은 가득 찬 물이 반드시 외재적인 바람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격랑을 일으켜 天下의 至文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문학 창작활동은 내재적 바탕과 외재적 환경이 서로 만나 이를 계기로 발현되는 것이어서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작품이 있다면 이는 감정이 성숙치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쓴 것이어서 자연스러울 리 만무하다.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은은한 옥은 단지 내재적인 아름다움만을 갖추고 있어 무늬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고, 칼로 새기거나 수놓은 것은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된다.

蘇洵의 자연스런 창작을 강조하는 문학관은 그대로 蘇軾에게 영향을 미친다.

무릇 옛날에 글을 쓴 이들은 글을 工巧롭게 하기 위해 공교롭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여 공교롭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산천에는 구름과 안개가 있고 초목에는 꽃과 열매가 있는 것처럼, 가득 꽉 차서 답답하게 막혀 있다가 밖으로 드러나기에 비록 드러내지 않으려 한들 어찌 그럴 수 있었겠는가? ……산천의 수려한 경치와 소박한 풍속, 현인군자들의 유적들, 눈과 귀로 직접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한데 섞이어 마음속에 와 닿아 절로 입을 통해 詩로 발하였다. (夫昔之爲文者, 非能爲之爲工, 乃不能不爲之爲工也. 山川之有雲霧, 草木之有華實, 充滿勃鬱而見於外, 夫雖欲無有, 其可得耶! ……山川之秀美, 風俗之朴陋, 賢人君子之遺迹, 與凡耳目之所接者, 雜然有觸於中, 而發於詠歎.)¹⁵⁾

나의 문장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나와 평지에 차고 넘쳐서 하루에 천리라도 어렵지 않게 흘러간다. 물이 산과 바위와 더불어 굽이쳐 꺾임에 이르러 (부딪히는) 사물에 따라 그 모습을 부여하기에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단지 내가 알 수 있는 바는 당연히 흘러야 할 곳을 항상 흐르다가 웅당 멈추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 항상 멈춘다는 것뿐이다. 그 밖의 것은 비록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吾文如萬斛泉源, 不擇地而出, 在平地滔滔汨汨, 雖一日千里無難, 及其與山石曲折, 隨物賦形, 而不可知也, 所可知者, 常行於所當行, 常止於不可不止, 如是而已矣, 其他雖吾亦不能知也.)¹⁶⁾

蘇軾은 옛 문인들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자신의 감정을 부득이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문학창작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고 자신

15) 蘇軾〈南行前集跋〉:《蘇軾文集》 제1책 권10, 323쪽.

16) 蘇軾〈自評文〉:《蘇軾文集》 제5책 권66, 2069쪽.

의 창작활동 역시 그러하다고 하였다. 蘇軾의 이러한 견해는 蘇洵이 두 物象이 무늬를 만드는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무늬를 만들게 된 것이며 물상이 서로 작용하여 무늬가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 문학관과 일치한다. 蘇軾은 〈答謝民師書〉에서 蘇洵의 이러한 관점을 한 층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략 흘러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처음엔 작정한 방향이 없는 듯했지만, 마땅히 가야할 곳에 항상 가고 웅덩이 그치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 항상 멈추니, 文理가 자연스러우며 姿態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大略如行雲流水, 初無定質, 但常行於所當行, 常止於不可不止, 文理自然, 姿態橫生.)¹⁷⁾

이 글에서 蘇軾은 문장이 구름이나 강물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표현될 때 문리가 자연스럽고 자태가 아름답다고 했다. 이 글은 謝民師의 문장을 칭찬하면서 평한 글이지만, 이러한 글을 그 자신 역시 최고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蘇洵의 자연스런 창작을 강조하던 관점은 그의 아들 蘇軾에게 그대로 이어져 '行雲流水'의 자연스런 문장기법으로 승화되었다.

IV. 문학의 진실성 강조

蘇洵은 작자의 마음에서 체득하여 쓴 글이라면 文辭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말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듯이, 진실로 내 마음에서 얻은 것이 있어 말한다면 그 文辭에 얽매이지 않고도 획득할 수 있다. (言無有善惡也, 苟有得乎吾心而言也, 則其辭不索而獲.)¹⁸⁾

역대 道統論者들은 모두 孔孟之道를 찬양하는 것이 문장의 좋고 나쁨을 헤아리는 최고의 기능자라고 여긴데 반하여, 蘇洵은 문학의 자연성을 강조한 연장선상에서 문학은 진실을 담아야하며 그 속에 헛된 망상이나 거짓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그의 관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孔子의 책들을 그 자신 스스로 터득한 것을 기술

17) 蘇軾 〈與謝民師推官書〉: 《蘇軾文集》 제4책 권49, 1418쪽.

18) 蘇洵 〈太玄論上〉: 《嘉祐集》 권7, 61쪽.

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래서 《易經》은 深思를 통하여 쓴 것이어서 매우 심오하고 《春秋》는 역사에 느낀 바가 있어 쓴 것이어서 매우 적절하고 《論語》는 현실 생활 속에 겪었던 언행을 기록한 것이어서 매우 평이하다고 말하였다.¹⁹⁾ 이를 통해 그는 진실한 사상과 감정을 체득하여 글로 표현할 것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바야흐로 글을 쓰는 것은 말하는 것과 같으며, 바야흐로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같다. 글이 말에 더 보탠 것이 있고 말이 마음에 더 보탠 것이 있으면, 聖人은 이를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여긴다. (方其爲書也, 猶其爲言也; 方其爲言也, 猶其爲心也. 書有以加乎言, 言有以加乎心, 聖人以爲自欺.)²⁰⁾

이 글에서는 스스로 느낀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느낀 것 이상의 과장이나 포장을 덧붙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덧붙인 과장된 언어와 문장은 자신의 생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蘇洵은 그러한 행위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가 揚雄을 비난한 까닭도 바로 揚雄의 文章이 진실성을 벗어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난은 바로 揚雄의 대표작인 《法言》·《太玄》 등의 작품이 《論語》·《周易》을 흉내내었다고 본 데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法言·吾子》에 있는 문장을 하나 들어보고자 한다.

어떤 이가 “君子는 文辭를 귀중히 여깁니까?”라고 묻자, “君子는 사실을 귀중하다고 여깁니다. 사실이 文辭보다 두드러지면 너무 강직해지고, 문사가 사실보다 두드러지면 賦작품처럼 화려하게만 된다. 하지만 사실과 문사가 제대로 비등해지면 儒家의 經처럼 법도가 되므로, 충분히 말할 만하고 꾸밀 만하니, 훌륭한 덕성에 아름다운 표현이로다”라고 말하였다. (或問: “君子尙辭乎?” 曰: “君子事之爲尙, 事勝辭則伉, 辭勝事則賦, 事辭稱則經, 足言足容, 德之藹矣.”)²¹⁾

《法言》이란 책이 《論語》의 형식을 흉내낸 책이지만 위에 든 문장을 보면 바로 《論語·雍也》의 “질박함이 문채로움보다 두드러지면 거칠게 되고, 문채로움이

19) 蘇洵〈太玄論上〉: 「夫子之於易, 吾見其思焉而得之者也; 於春秋, 吾見其感焉而得之者也; 於論語, 吾見其觸焉而得之者也. 思焉而得, 故其言深; 感焉而得, 故其言切; 觸焉而得, 故其言易.」(《嘉祐集》 권7, 61쪽.)

20) 蘇洵〈太玄論上〉: 《嘉祐集》 권7, 61쪽.

21) 揚雄〈吾子〉: 《揚子法言》 권2.

질박함보다 두드러지면 형식적인 것이 된다. 文과 質이 잘 조화되어야 君子라고 할 수 있겠다(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²²⁾라는 내용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 태도가 蘇洵의 눈에는 매우 못마땅하게 보였던 듯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揚雄을 평하고 있다.

그 후로 그 마음에서 얻지 않았는데 말을 하고 그 말에서 얻지 않았는데 글로 쓰는 것을, 나는 揚雄에게서 보았다. 의문을 갖고서 묻고 질문하여 변론하는 것이 바로 묻고 변론하는 방법이다. 揚雄의 《法言》은 묻기에 부족한 것을 변론하고 의심하기에 부족한 것을 질문한다. ……《太玄》이란 것도 揚雄 자신을 孔子에게 더한 것이지 마음에서 얻은 것은 아니다. (後之不得乎其心而爲言, 不得乎其言而爲書, 吾於揚雄見之矣. 疑而問, 問而辯, 問辯之道也. 揚雄之法言, 辯乎其不足問也. 問乎其不足疑也. ……太玄者, 雄之所以自附於夫子, 而無得於心者也.)²³⁾

蘇洵의 揚雄에 대한 비난이 이치에 맞느냐에 관한 여부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가 글이란 자신의 마음 속에 체득한 그대로를 써야 하며 과장하거나 멋있는 문사로 포장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창작태도 면에서 그는 사심이나 의도하는 바가 없는 솔직하고 진정한 글을 쓸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蘇洵은 작가의 독창적인 개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관한 그의 주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어르신의 문장은 천하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람되게도 특히 제가 어르신을 알고 있는 것이 천하사람들보다 더 깊이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孟子의 문장은 말이 간략하나 뜻이 극진하고, 깎아지른 듯 끊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그 예리함은 가히 범할 수 없습니다. 韓愈의 문장은 長江과 黃河가 웅혼히 흘러 휘몰아치면 물고기·자라·교룡이 온갖 괴현상에 놀라 의아해하지만 (그 의혹을) 꺾 눌러 막고 은폐하고서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같이, 사람들은 그 심오한 빛과 고색장연한 색을 보기를 바라나 또한 스스로 두려워 피하며 감히 다가가서 보지 못합니다. 어르신의 문장은 이리저리 빙빙 돌려 세밀히 갖추었고, 이리 꺾었다가 저리 꺾었다가 하면서도 사방으로 통함이 탁 트여서 끊어지는 바가 없으니, 語氣가 충분히 표현되어 하고싶은 말을 모두 전달하고, 급박한 언설과 논리는 다했으나 한적하고 평이하여 어렵게 고심한 모습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 세 사람은 모두 독자적인 一家의 문장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執事之文章, 天下之人莫不知之. 然竊自以爲洵之知之特深, 愈於天下之人. 何者? 孟子之文, 語約而意盡, 不爲纒刻斬絕之言, 而其鋒不可犯. 韓子之文, 如長江大河, 渾浩流轉, 魚龍蛟龍, 萬怪惶惑, 而抑遏蔽掩, 不使自露, 而人望

22) 《論語·雍也》: 《十三經注疏》(台北, 藝文印書館, 1997) 제8책, 54쪽.

23) 蘇洵《太玄論上》: 《嘉祐集》 권7, 61쪽.

見其淵然之光，蒼然之色，亦自畏避不敢追視。執事之文，紆餘委備，往復百折，而條達疏暢，無所間斷，氣盡語極，急言竭論，而容與閑易，無艱難勞苦之態。此三者，皆斷然自爲一家之文也。)24)

이 글에서 그는 孟子·韓愈·歐陽脩 등의 '自爲一家'한 문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간결하고도 정련된 문장을 사용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들이 독창적인 문장을 써낼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진실성에 기초하여 여러 성현의 훌륭한 문장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V. 사회적 실용성 증시

蘇洵은 文章이란 응당 사회에 효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君子가 문장을 짓는 것은 工人이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그 모양을 보아 그 쓰임을 안다”25)라고 하였다.

蘇軾은 <堯釋先生文集敍>중에서 蘇洵의 실용주의적 관점을 기재하고 있다.

옛날 제 아버님이 서울에 가서 卿大夫들과 교류하고 돌아와, “오늘이후로 문장이 틀림없이 공교로와질 것이고 도는 장차 흠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선비들이 먼 것을 흠모하고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하며 화려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실질적인 것을 천히 여기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그 조짐을 보았다”라고 제게 말씀해주셨다. 이어서 山東출신인 堯釋先生의 詩文 10여 편을 저에게 보여주며 “애야,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천하에는 다시 이러한 글을 짓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아느냐! 선생의 詩文은 모두 세상을 위하고자 해서 지은 것이다. 정밀하고 준엄하며 정확하고 고심하니, 말은 반드시 當世의 허물을 적증시켰다. 조리가 정연하기가 五穀과도 같아 반드시 배고픔을 치료할 수 있고, 정성이 전일하기가 藥鍼과도 같아 반드시 병을 헤아릴 수 있었다. 浮華한 말을 높이 여기고 지엽적인 文詞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긴 것에 관해서는 선생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 (昔吾先君適京師，與卿大夫游，歸以語軾曰：「自今以往，文章其日工，而道將散矣。士慕遠而忽近，貴華而賤實，吾已見其兆矣。」以魯人堯釋先生之詩文十餘篇示軾曰：「小子識之，後數十年，天下無復爲斯文者也。先生之詩文皆有爲而作，精悍確苦，言必中當世之過，鑿鑿乎如五穀必可以療飢，斷斷乎如藥石必可以伐病，其游談以爲高，枝詞以爲觀美者，先生無一言焉。」)26)

24) 蘇洵 <上歐陽內翰第一書>: <嘉祐集> 권11, 108쪽.

25) 蘇洵 <太玄論上>: 「君子之爲書，猶工人之作器也，見其形以知其用。」(<嘉祐集> 권7), 63쪽.

26) 蘇軾 <堯釋先生文集敍>: <蘇軾文集> 제1책 권10, 313쪽.

이 글에서 蘇洵은 문학창작의 가장 큰 목적이란 바로 실용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그 당시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蘇洵은 한편으로는 貴古賤今의 생각과 문장의 화려함만을 강조하는 당시의 文風에 대하여 강한 반대사를 표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堯禪先生의 문장이 사회적 실용성을 지녔음을 칭송하였다.

문학의 사회적 실용성에 대하여, 蘇洵 스스로도 〈議修禮書狀〉이라는 글에서 禮書를 만들 때의 逸事를 기록하고 있는데 좋은 예가 된다.

저는 우선 칙령을 받들어 禮書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저의 동료가 상소하여, 선왕의 행적 중에는 과실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기록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 모두 삭제하여 기록을 남겨두지 마소서하고 글을 올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외람되게도 저는 속으로 의론한 자의 말이 칙령을 내리신 황상의 本意와 크게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앞서 칙령을 받은 바, 그 의도는 옛 일을 모아 엮어서 후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따름이라고 말하신 것이지 典禮를 제정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그것을 따라 행하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편찬하는 것은 史書와 같은 류입니다. 사건을 만나면 글로 기록하며 善惡을 가리지 않고 그 曲折을 상세히 하여야 하며, 후세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막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여 善惡이 저절로 명백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史體입니다.(洵先奉勅編禮書, 後聞臣寮上言, 以爲祖宗所行, 不能無過差不經之事, 欲盡芟去, 無使存錄, 洵竊見議者之說, 與勅意大異, 何者, 前所授勅, 其意曰, 纂集故事, 而使後世無忘之耳, 非曰, 制爲典禮, 而使後世遵而行之也, 然則洵等所編者, 是史書之類也, 遇事而記之, 不擇善惡, 詳其曲折, 而使後世得知而善惡自著者, 是史之體也.)²⁷⁾

이 글에서 그는 악행을 가리고 과실을 숨기며 선행은 기술하면서 악행은 기술하지 않는 잘못된 역사기술 태도를 반대하였는데, 이는 바로 문장의 사회적 실용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문학에 대한 실용성 강조는 蘇洵 스스로 현실 문제에 대한 많은 議論文을 쓰게 한 주요한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적마다 그 나름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蘇洵은 특히 경서와 사서의 효용을 제대로 잘 활용할 때 더욱 훌륭한 문장을 짓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蘇洵은 賈誼와 陸贄의 의론을 자세히 논술하고 나서 문장의 구체적인 요건으로서 事實·文詞·道理·法術을 주장하면서 경서와 사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

27) 蘇洵 〈議修禮書狀〉: 《嘉祐集》 권14, 150쪽.

하고 있다.

무릇 文의 쓰임은 네 가지이다. 事實으로써 그것을 실증하고, 文詞으로써 그것을 문채 있게 하고, 道理로써 그것을 통하게 하며, 法術으로써 그것을 검증하니, 이는 경서와 사서가 겸하여 소유한 바이다. 비록 그러하나, 경서는 道理와 法術에 뛰어나고 사서는 事實과 文詞에 뛰어나므로, 경서는 사서의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는 그 褒貶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서는 경서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는 그 輕重을 가릴 방법이 없다. 경서는 一代의 實錄이 아니며 사서는 萬世의 常法이 아니니, 본질은 서로 다르지만 작용은 실로 서로 돕는다. 무릇 《易經》·《禮記》·《樂經》·《詩經》·《書經》은 聖人の 道理와 法術을 말함이 상세하나 그것을 실제 사실로서 증명하지 않았으니, 孔子는 후세인이 그것을 聖人の 사사로운 말이라 할까 걱정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訟告를 알리듯 다급한 마음으로 저술하여 《春秋》를 찬수하여 善을 권장하고 惡을 징벌하니, 이것이 경서의 道理이다. 또 후세에 이르러 개인의 억측으로 여겨질까 두려워하여 고로 《周禮》에 근본하여 法術을 마련했으니, 이것이 경서의 法術이다. 事實에 이르러서는 즉 간략함을 증시하고 文詞에 이르러서는 즉 간결함을 힘쓴다. 나는 고로 경서는 道理와 法術에 뛰어나다고 말한 것이다. 사서는 그러하지 않은데, 事實이 이미 자세하고 상세한데다가 文詞 또한 과장되어 빛나니, 소위 褒貶하고 論贊하는 것 외에는 모두 그러하다. 나는 고로 사서는 事實과 文詞에 뛰어나다고 말한 것이다.²⁸⁾

이 글은 經과 史의 특징을 구별하면서 그들 상호간의 보완적인 면을 강조한 글이다. 즉 경서는 道理와 法術이 그 생명이며 사서는 事實과 文詞가 그 요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호간에 보완하여야 비로소 효과적으로 聖人の 완전한 의도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蘇洵은 “司馬遷과 班固의 史書가 비록 事實과 文詞에 뛰어나지만 또한 道理와 法術을 겸하여 갖추고 있다”²⁹⁾라고 하면서, 사서 역시 경서의 장점을 겸하여야 한다고 여겼다.

蘇洵의 이러한 학설은 이전 古文家들의 이론 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학설이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道理는 古文家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왔던 견해이며 事實은 歐陽脩가 蘇洵에 앞서 이미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文詞와 法術에 관한 언급은 그의 참신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그의 문장은 法術을 증시하여 내

28) 蘇洵〈史論上〉:「大凡文之用四:事以實之,詞以章之,道以通之,法以檢之,此經史所兼而有之者也。雖然,經以道法勝,史以事詞勝;經不得史無以證其褒貶,史不得經無以酌其輕重;經非一代之實錄,史非萬世之常法,體不相洽,而用實相資焉。夫易禮樂詩書,言聖人之道與法詳矣,然弗驗之行事,仲尼懼後世以是爲聖人之私言,故因赴告策書以修春秋,旌善而懲惡,此經之道也,猶懼後世以爲己之臆斷,故本周禮以爲況,此經之法也。至於事則舉其略,詞則務於簡,吾故曰經以道法勝,史則不然,事既曲詳,詞亦誇耀,所謂褒貶論贊之外無幾,吾故曰史以事詞勝。」(《嘉祐集》 권8), 73쪽.

29) 蘇洵〈史論下〉:「遷固史雖以事詞勝,然亦兼道與法而有之。」(《嘉祐集》 권8), 74쪽.

용상 策士의 의론에 이르렀고 文詞를 중시하여 형식상 文人의 修辭에 이르렀다.³⁰⁾ 이를 통해 蘇洵은 문장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점, 즉 道理·法術·文辭·事實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데 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古文家들은 모두 經을 至高無上의 모범으로 신봉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經書와 史書의 보완관계를 기술하여 經을 독존시 하지 않았다.

VI. 나가는 말

蘇洵은 그 아들 蘇軾과 蘇轍과 함께 '三蘇'라 칭해지며 '老蘇'라 구별하여 불리어진다. 그는 北宋 초기에 살았던 인물로, 당시 중국은 안이론 불안정한 정치국면과 밖으로 끊임없는 외침으로 많은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하던 때였다. 蘇洵은 젊은 시절 배움을 즐기지 않다가 20대 후반에 가서야 학문에 정진하였지만 끝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포부를 정치에 펼치지 못했던 그는 자신의 議論文을 당시 집정자였던 歐陽脩·富弼·韓琦 등에게 올려 간접적인 성과를 이루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議論文이 그의 문장 중에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본고는 바로 그러한 글들 속에서 蘇洵의 문학관을 간략히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蘇洵은 구체적인 문학기론을 설파하지 않았지만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볼 때 그의 문학관은 대략이나마 알아볼 수 있었다.

蘇洵은 어느 한 학술사상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러 사상을 두루 접하여 당시 어느 문인보다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였다. 목적성을 갖거나 의도된 작품을 철저히 배제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절로 글로 표현하게 된 자연스런 창작을 주장하였고, 그러했기에 揚雄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하거나 당시 文風처럼 지나친 수식과 과장으로 일관한 작품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문학은 참된 진실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진실한 감정과 표현은 절로 그 문학 작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이는 문학분야에서 새로운 一家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蘇洵은 문학의 사회적 실용성을 중시하여 문장 속에 현실의 잘못을 숨기지 말고 들추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서의 기능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경서가 지닌 道理와 法術에다가 事實과 文詞 방면에 뛰어난 사서의 장점을 잘 혼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0) 羅根澤 <中國文學批評史>(台北, 學海出版社, 1990), 697-699쪽.

蘇洵의 이러한 문학관은 蘇軾에게 이어져 道學家들의 '文以載道' 관념이나 古文家들의 '文以明道'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文以貫道'로 가는 초석을 깔았다고 하겠다. 또한 蘇洵은 宋代의 유희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 歐陽脩 등에 의해 주도되었던 宋代古文運動에 일조하였다. 그래서 후세에 그의 문장은 고문의 모범으로 여겨져 唐宋八大家 중의 한 사람으로 추앙 받기에 이르렀다.

【參考文獻】

- 蘇洵, 《嘉祐集》, 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77.
 蘇軾, 《經進東坡文集事略》, 香港, 中華書局, 1979.
 趙則誠·張連弟·畢萬忱, 《中國古代文學理論辭典》, 吉林文史出版社, 1985.
 孔凡禮 校點,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6.
 歐陽脩, 《歐陽脩全集》, 北京, 中國書店, 1986.
 吳文治, 《中國文學史大事年表》, 合肥, 黃山書社, 1987.
 朱世英·郭景春, 《唐宋八大家散文技法》,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89.
 羅根澤, 《中國文學批評史》, 台北, 學海出版社, 1990.
 郭紹虞, 《中國歷代文論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成復旺·黃保真·蔡鍾翔, 《中國文學理論史》, 北京, 北京出版社, 1991.
 屈守元·常思春 主編, 《韓愈全集校注》,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1996.
 曾棗莊, 〈蘇洵與北宋古文革新運動〉: 《四川師院學報》1981年 1期, 70-75쪽.
 拙稿, 〈蘇洵散文研究〉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94년 6월.
 김종섭, 〈蘇洵의 論辯文 研究〉: 《中國文學》 제25집, 1996년 6월, 199-220쪽.
 김종섭, 〈蘇洵의 文學理論에 관한 一考察〉: 《中國文學》 제31집, 1999년 5월, 93-107쪽.
 拙稿, 〈蘇軾文藝理論研究〉國立政治大學中文研究所 博士論文, 2003년 7월.

【中文提要】

蘇洵和其子賦、轍在一起被稱為「三蘇」，並把他稱為「老蘇」。他是北宋初生活的人。從當時的情況看，由於不安定的政治局面和不斷的外侵，產生多種弊端。他少時不喜學問，過後發奮讀書，然而沒有遇到機會。通過其政論性文章奏給歐陽脩·富弼·韓琦等，他想取得間接的成就，所以議論散文特別在文章中占絕對多數。

蘇洵沒有樹立完整的文學理論，但在幾篇文章中散見關於文學觀念的內容。蘇洵提倡爲了文學自體的文學。若有益於寫作文章，他不但吸取了儒家的經傳，而且吸取了史·兵及諸家的書籍。他提出「風水相遭」學說來主張自然成文的創作，認爲內心的思想感情及學問道德受到外物的刺激，不能自己抑制創作表現。他重視對於文學的社會效用性，主張「有補於世」之寫作，並且，創作態度上，他提出「得乎吾心」說，認爲必須表現真實的感情。他主張寫作文章時，應該具備事實、文詞、道理、法術等文章要素。

他打下比唐代「文以載道」更發展的「文以貫道」的基礎。蘇洵破除宋代唯美主義的趨向，還在宋代古文運動上發揮推動作用。所以後世人把他的文章認爲古文的典範，而推崇他唐宋八大家之一人。

【主題語】

蘇洵 文學觀 文以載道 文以貫道 三蘇 진실성 실용성 자연성